

이주열 “변동성에 꼼꼼히 대비해야”

(한국은행 총재)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 처음 간부회의에서... 금융시장은 비교적 담담한 모습 보여

12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대통령 탄핵안 가결과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 등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금융시장에 불안감이 확대될 것에 대비해 만반의 준비 태세를 갖추도록 당부했다.

이 총재는 이날 오전 열린 간부회의에서 참석자들에게 이 같이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은은 매주 월요일 국장급 이상 참석하는 간부회의를 열고 있는데, 이날 회의는 특히 지난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처음으로 열려 관심을 모았다.

한은 관계자는 “이 총재는 오늘 회의에서 평소와 다름없이 각 부서별로 동향을 보고 받고 현안들을 꼼꼼히 챙겨봤다”며 “다만 간부들에게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 각종 현안들에 대비해 대응 태세를 갖추도록 당부했다”고 말했다.

한은은 휴일인 지난 10일에도 이 총

재 주재로 간부회의를 열고 국제금융시장 반응과 해외투자자 시각을 점검했다. 또 통화금융대책반의 24시간 비상근무체제를 가동해 금융·외환시장 상황 변화, 우리 경제에 대한 해외의 평가 등을 점검하고 있다.

대통령 탄핵안 가결에도 금융시장은 비교적 담담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일(1165.9원)보다 6.1원 오른 1172.0원에 출발했다. 탄핵보다는 달러화 강세와 국제유가 상승이 원·달러 환율을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된다. 코스피지수도 전 거래일 대비 7.26포인트(0.36%) 오른 2031.95로 출발했다.

지난 2004년 3월12일 고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 가결 당시 원·달러 환율이 11원 이상 오르고, 코스피지수가 2.4% 급락한 것에 비하면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평가다.

국제금융시장도 차분한 분위기다. 9일(현지시간) 역외차액결제선물환(NDF) 시장에서 원·달러 1개월물은 5.5원 상승한 1168.8원을 기록했고, 외평채금리 10년물은 0.06%포인트 상승한 2.63%를 나타냈다. 다만 이는 탄핵 가결 보다는 각각 달러화 강세 및 미국채금리 상승 등 대외요인의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다.

한국의 국가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5년물)은 42.5bp(1bp=0.01%포인트)로 전일 수준을 유지했다. CDS는 채권을 발행한 기업이나 국가 등이 부도났을 때 손실을 보상해주는 금융파생상품이다. CDS 프리미엄의 상승은 국채채권을 발행할 때 그만큼 비용이 더 드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탄핵안 가결 외에도 오는 13~14일(현지시간)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상과 15일 한은의 금융통화위원회의가 예정돼

있는 만큼, 향후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에 금융당국은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탄핵안 가결과 미 금리인상 가능성은 시장에 이미 어느 정도 반영이 돼 있어 금융시장에 큰 충격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며 “다만 국내 정치적 불안이 장기화될 가능성과 미국의 금리인상 속도와 방향 등에 대한 불확실성이 큰 만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11일 임종룡 금융위원장 주재로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 이날 오전에는 금융감독원과 합동 리스크 점검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금융권 상황과 가계부채, 구조조정 등 경제 리스크 관리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13일에는 은행업권과 보험업권, 금융투자업권 등 업권별 리스크 점검회의를 열 예정이다. /뉴시스

갤럭시노트7 이용자 11만명 선택은

현재 회수율 80% 초반... 교환·환불 오는 31일 종료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의 교환·환불 기한이 앞으로 꼭 20일이 남았다. 현재 우리나라의 갤럭시노트7 회수율은 80% 초반 수준으로 아직 11만명의 이용자가 갤럭시노트7을 손에 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기한내에 환불 등에 나설지 관심이 쏠린다.

서구권 회수율 90%보다 한참 못 미치는 가운데 삼성전자는 배터리 충전 제한 강화와 네트워크 차단 조치 등을 검토하고 있다.

12일 삼성전자와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최초 구매처에서 진행되는 갤럭시노트7 교환·환불이 오는 31일 종료된다.

우리나라의 갤럭시노트7 회수율이 해외보다 떨어지는 배경에는 여러 요인이 있다. 갤럭시노트7 단종 열풍 뒤에 나온 아이폰7이 기대만큼 돌풍을 일으키지 않았고,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갤럭시노트7에 큰 문제가 없는 이상 최대한 길게 쓰다가 새 모델로 바꾸

겠다는 심리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아이폰7이 갤럭시노트7 반사이익을 볼 것이라 전망이 있었으나 엇나갔다. 아이폰은 애플 고유의 운영체제 영향 등으로 아이폰을 쓰는 사람이 계속 구매해 갤럭시 고객 유입률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갤럭시노트7 고객군은 최신 디바이스에 관심이 큰 만큼 내년 신작을 기다리는 경우도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노트7의 글로벌 고객 회수율은 306만대 중 90%(약 275만대)에 가깝다”며 “북미와 유럽 등 해외 지역에서는 90%를 넘어서는 회수율을 나타냈다. 우리나라는 80% 초반의 회수율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갤럭시노트7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배터리 충전 제한 강화 등 추가적인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시스

3분기 스마트폰 시장, 중국 약진... 삼성·애플 부진

전년비 점유율 삼성전자 3.6%p↓ · 애플 1.5%p↓
화웨이 1.5%p↑ · 오포 3.3%p↑ · 비보 2.1%p↑
중국업체 생산량, 글로벌 전체 생산량의 절반 수준

최근 프리미엄 스마트폰이 사양 평균화되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빅3’ 스마트폰 메이커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스마트폰 시장이 내년에는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중국 스마트폰 기업들의 성장세가 뚜렷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스마트폰시장을 이끌고 있는 ‘톱3’ 삼성전자·애플의 올해 3분기 실적 이 부진하면서 스마트폰시장이 사실상 정체기에 진입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삼성전자와 애플의 점유율이 동반 하락하고 있는 반면 화웨이, 오포, 비보 등 중국 제조사들이 약진하고 있다.

최근 시장조사업체 스트래티지애널리틱스(SA)에 따르면 지난 3분기에 삼성전자와 애플의 점유율이 일제히 하락한 대신 중국 기업들이 급성장하고 있다.

화웨이는 올해 3분기 9.0%의 점유율을 기록, 3위 자리를 지켰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7.5%를 기록했다.

오포의 시장 점유율은 2.5%에서 5.8%로, 비보의 시장 점유율은 2.8%에서 4.9%로 각각 올랐다. 세계 시장에서 중상위권을 형성하는 중국 업체들 간의 경쟁이 치열해진 것이다.

이 기간 삼성전자는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20.1%의 점유율을 기록했다. 점유율 1위 자리를 유지했으나 지난해 같은 기간(23.7%)보다 점유율이 3.6% 포인트 감소했다. 스마트폰 출하 대수는 8380만대에서 7530만대로 감소했다.

2위 애플은 시장 점유율이 지난해 13.6%에서 12.1%로 1.5%포인트 줄었다. 출하 대수는 4800만대에서 4500만대로 줄었다.

화웨이, 오포, 비보는 중국뿐 아니라 인도 등 아시아 신흥 시장으로 진출하면서 영향력을 확대해 가고 있는 상황이다.

스트래티지애널리틱스 측은 “오포는 중국에서 대중적인 제조사로 인도, 아시아 등 신흥 시장에 빠르게 진출하는 떠오르는 별”이라며 “비보도 중국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시장에서



화웨이 스마트폰

삼성, 애플, 화웨이 등 경쟁사의 점유율을 잠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밖에 지오니아, 라에코, 메이주 등 중국의 신흥 스마트폰 제조사들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런 중국 스마트폰 제조업체들의 안정적 세대교체로 삼성전자와 애플의 자리는 점점 위협받고 있는 것.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는 화웨이, 오포, 비보, 레노버, 샤오미 등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의 올 3분기 전체 생산량을 1억6800만대 규모로 추산했다. 이는 전분기보다 약 16% 늘어난 수치다. 또한 중국 업체들의 생산량은

삼성전자와 애플의 생산량을 합친 것보다 많다. 글로벌 전체 생산량인 3억 5000만대와 비교하면 절반에 이르는 수준이다.

트렌드포스는 중국 업체들이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의 주동력으로 자리를 확실히 굳혔다고 분석했다.

업계 관계자는 “프리미엄 스마트폰 사양 평균화로 상대적으로 출고가가 낮은 중국 스마트폰 업체의 영향력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애플이 갤럭시노트7 이슈로 수혜를 입었으나 주요 시장에서 아이폰에 피로감을 느끼는 소비자들이 있다”고 분석했다. /뉴시스

현대·기아차 ‘브림스’ 실적 희비 엇갈려

인도·멕시코 ‘선방’... 브라질·러시아 주춤

올해 현대·기아차의 브림스(BRIMS) 4개국 실적 실적이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브림스는 ‘브라질·러시아·인도·멕시코’ 4개국을 이르는 말이다.

현대·기아차는 인도와 멕시코 시장에서 선방하고 있으나 브라질과 러시아 시장에서는 전체적인 시장 침체를 겪으며 실적이 주춤하고 있다.

12일 각국 자동차협회에 따르면 현대·기아차는 올해 1~11월 브라질 시장에서 총 18만9568대를 판매해 지난해 같은 기간 판매량인 19만9548대보다 5% 감소했다.

현대차가 올해 17만9757대를 팔아 전년 대비 3% 감소했고, 기아차는 같은 기간 9811대로 32% 판매량이 줄었다.

다만 시장점유율은 두 자릿수를 넘길 전망이다.

브라질은 올해 극심한 시장 침체를 겪으며 1~11월 자동차(승용·상용) 판매량이 전년 대비 20.8% 급감한 17만9757대를 기록했다.

현대·기아차는 전체 시장 대비 감소폭이 줄어들며 시장점유율이 지난해보다 1.8%포인트 확대된 10.6%를

나타냈다. 러시아 시장에서도 현대·기아차는 실적이 뒷걸음질 쳤다.

러시아 자동차 시장은 올해(1~11월) 신규 판매가 전년 대비 12% 감소했다. 현대차와 기아차의 판매량도 13만207대, 13만6374대를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2%, 8% 줄었다.

반면 인도와 멕시코 시장에서는 판매가 성장세를 나타냈다.

올해 현대차는 인도에서 연 50만대 판매 돌파를 앞두고 있다. 현대차의 1~11월 인도 시장 판매량은 46만280대로 전년 동기 대비 6% 성장했다.

전력모텔 ‘그랜드 ii0’와 ‘크레타’가 상승세를 이끌었다. 그랜드 ii0의 판매량은 12만5668대로 전년 동기 대비 13% 성장했고, 크레타는 8만6464대 팔리며 전년 동기 대비 138% 급증했다.

멕시코에서는 기아차가 멕시코 공장을 본격 가동하면서 판매량이 크게 늘었다.

기아차와 현대차는 올해 1~10월 4만6622대, 2만9595대를 판매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600%, 41% 성장했다. /뉴시스

본인이 뚱뚱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효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